朝鮮日報
夕刊 四日(日)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錯綜한歐洲外交界
——暴風來의前奏曲——

一

最近 數個年間의 歐洲外交界처럼 緊張 多端한 例는 드물었다。에디오피아事件때는英國을 비롯한 聯盟諸國이 總動員하야 經濟制裁를 敢行하얏고 獨逸의 『체코』國境 集兵에 際하야는 英佛이 對獨戰端을 開始할것처럼 보혓스며 튜니스問題를 둘러싸고는 다시 佛伊間에 一大衝突을 未免할 形勢에 잇다。그뿐아니라 西班牙를 中心한 英佛蘇對 獨伊의 對立、발칸諸國을 둘러싼 英佛對 獨伊의 抗爭은 暗暗裡에 激化되여 언제 어느곳에서 戰端을 이르킬지 모를 形勢에 잇다。

二

그러나 戰爭의 極點에까지이르럿다가도 艱辛히 戰爭을 避하고 말은것은 最後의 場面에서 英佛等 旣成國家가 讓步的 態度를 取한 때문이다。英國이 地中海에 全海軍을 出動시키고 伊太利에 威脅的 態度를 示하얏슬때 伊太利가 戰爭도 不辭란 態度로 나왓건만 英國은一兵을 움직이지 안코 伊太利의 對에軍事行動을 默認하고 말앗스며 獨逸의 對체코進軍直前 英首相 체발린은 獨逸을 訪問하야 뮨헨協定을 締結하야 獨逸의 체코分割을 承認하얏다。그리하야 英佛兩國은 獨伊等 不平國家에 讓步的 態度를 取하므로써 겨우 戰禍를 廻避하얏다。튜니스問題라 할지라도 結局 佛國이 伊太利에 讓步하야 問題를 解決치아니치 못할것이다。

三

그러면 英佛等 國家가 어째 戰爭을 廻避하고 獨伊等에 讓步를 거듭하는냐하면 英佛等 旣成國家는 保守的 現狀維持를 일삼는다。戰爭이 勃發하야 長時日을 걸리면 設使戰爭에 勝利한다 할지라도 多大한 人的、物的 損害를 볼뿐아니라 尨大한 植民地의 分離 又는 利權喪失을 볼 憂慮가 잇다。그러므로 戰爭을 하야 損害를 할 以上의 損害가아니면 戰爭에 訴하지 안코 外交的으로 解決하라한다。

四

그러나 英佛이 讓步에 讓步를 거듭한다 하드래도 無制限히 讓步할것은 아니다。그들은 多年의 政治的經驗을가젓기 때문에 武力을 쓰지안코 勝利를 엇기에 努力하고 不得已하면 武力에 訴할 讓備를 가젓다。最近 英國이 米國과 通商協定을 締結하야 近者에는 前外相 이든氏가 渡米하며 明春 조지陛下의 渡加를 機會로 米國을 訪問하는것은 米國을 自己陣營에 너흐려는 心算이 아니냐。他方 英國은 尨大한國防豫算을 드려 一九四〇年頃에는 海軍航空에잇서서 優大한 性能을發揮하게쯤 되는것은 外交와國防을 併行하는것이 아니냐。그러므로 英佛의 讓步가 永久的이아니오 萬一의 境遇엔 戰爭을 辭치아니할것이니 現下의外交戰은 一種歐洲大戰의 前奏曲이라할수잇다。

佛國政府抗議一蹴
伊、强硬態度表明
兩國間緊迫狀態繼續

【巴里三日發同盟】伊太利의 佛領植民地要求示威에 關하야 폰세佛大使는 二日午後 차노外相에 對하야 抗議的提議를 한바 確聞한바에 依하면 차노外相은 右佛國政府의 抗議를 一蹴하고 『伊太利政府는 十一月三十日 伊太利下院에서 行한 反佛示威에 關하야 그責任을 질수는업다』는 旨를 言明하야 伊太利政府의 强硬態度를 表明하엿다고한다 (寫眞上은 무伊首相 下는 달佛首相)

英政府事態를憂慮 伊國側自重要望
近近伊政府眞意打診

【倫敦三日發同盟】英國政府는伊太利의 植民地要求示威에 發端한 佛伊間의 緊迫狀態를 重大視하고 파-쓰駐伊大使를 通하야 地中海現狀維持에 關한 英伊政治協定의 意義에 基하야 伊太利政府의 自重을 要請하기로 決定하엿다 伊太利政府가 依然히 强硬態度를 固執하면 佛國政府로서는 大使撤去를 斷行할것으로 觀測되며 英國政府로서는 체발린首相의 羅馬訪問을 延期하지안흘수업스리라고 觀測되는바 伊太利政府의 意圖에 關하여서는 對佛强硬態度에 依하야 有利하게 解決하려는것이라는 觀測이 有力하다

【倫敦三日發同盟】伊太利下院에서의 議員들의 反佛言辭는 方今 重大問題化하게된바 코빈駐英佛大使는 二日外務省으로 카드간次官을 訪問、同問題에 關한 佛國政府의 見解를 表明하엿다 로이테通信社는 다시同問題에 關하야 英國政府도 近近伊太利政府에 抗議를發할것이라하야 左와 如히 報하고잇다

伊太利下院에서 發生된 事件은 如何한 意味를 含한것인가를 照會하기爲하야 近近伊太利政府에 對하야 提言할것이라고 觀測된다 最近發効에 至한 英伊協定도 地中海의現狀維持에 關하여서는 一項目을 設하고잇서 英伊兩國政府는 同協定에잇서서 地中海西部國境線變更의 意思가업슴을 規約하고잇다 따라서伊太利下院의 今回와如한 發言은 佛伊關係及 英伊協定이 明白히 目標로한 英伊關係의 改善을 意圖한것이라고는 認定되지안는다 如斯한 理由에依하야伊太利下院에서의 今番事件은英國政府의 憂慮를 招來하고잇다

콘돌五勇士에게 有功章授與

【東京電話同盟】帝國飛行協會의 콘돌五勇士에 對한 有功章授與式은 三日午後四時半부터 芝田村町의 同協會에서 擧行된바 大島健一中將 獨逸大使館 콜보參事官 同陸海軍武官을 爲始로 我國朝野의 航空關係者 百餘名列席下에 會長阪谷男으로부터 機長헨케氏에 對하야 同協會最高의 白色有功章을 모-로-操縱士 코-네機關士에 綠色을 無電技師 데일비르그、코-벨兩氏에 紅色有功章을 各各授與 更히 헨케氏에게는 記念品으로서 銀製花甁을 贈與하엿다

宿遷米國病院爆擊問題 無條件圓滿解決

【北京三日發同盟】去十一月五日 我空軍部隊는 宿遷攻擊의際 垂直으로된 米國旗가잇슴을 認知하엿스므로 卽時攻擊을 停止하고 歸還한바 그後米國側으로부터 同國旗는 米國病院의것인바 右戰鬪에依하야 入院中의 支那人患者一名이 死亡하엿다는 通告가잇섯스다 이에依하야 我軍에서도卽時實情을 調査中 二日의現地折衝結果 同問題는 無條件으로圓滿히解決하엿다

◇——上海激戰地大場鎭에 竣工된 我軍英靈의 表忠塔——◇

汎米會議 來九日부터開催

【리마三日發同盟】第八回汎米會議는 마침내 來九日부터 開催키로되엿다 三日까지에는米國代表를 際한關係各國代表가 全部리마에 參集하엿다 會議는九日부터 三週間에亘하야 開會될豫定인데懸案이 山積된此際會議의 推移는 자못注目된다

漢口駐剳 米總領事更迭

【漢口三日發同盟】漢口駐剳米國總領事 과일 조세린氏는今般歸國命令을밧고 그後任으로 瑞西駐剳總領事 스파이커氏가 任命되엿다 新總領事는 瑞西在勤二個年을 除하고 外交官生活의大部分을 支那에서보낸支那通이다

堂堂九江에入市

【九江三日發同盟】敵의 軍需品輸送連絡의 要衝인九江攻略에當하야○○部隊長은 三日早朝○○을出發 스스로陣頭에 나서서九江東側高地에서 戰鬪指揮에 當하고잇든바 三日午後三時市內掃蕩終了를 기다려 同四時半揭揚된 日章旗下에 堂堂九江에入市하엿다

我陸鷲、伊克昭盟首都東勝을猛爆
西北赤色路東北角崩壞

【北京三日發同盟】我陸荒鷲永持部隊芝田大尉의 引率한○○는二日○○基地를出發 陝西省을越하야 不毛荒涼의오르도쓰를 突破하고 中部伊克昭盟의 首都東勝에 對하야 午前十時부터連續해서 三回에亘하야 猛爆擊을敢行한結果 敵에徹底的損害를주엇다 東勝附近에잇는 敵은오르도쓰에潛入한 傅作義軍麾下 何村國等의引率한手兵約五千이며 同日 東勝附近에 集結하고잇든 敵은 三千餘不下하며 我荒鷲의 奇襲에遭遇하야 人馬의損害가 甚大하엿다 이에依하야 敵은 오르도쓰唯一의據點을失하고 不毛의地에四散하는以外에는 道理가업게되어北赤色루-트의東北角은 벌써 崩壞하게되엿다

河北山西兩省 殘敵討伐狀況

【石家莊三日發同盟】○○部隊에依한 河北、山西兩省其後의 殘敵討伐狀況은 如左하다

一、寧晉縣城(河北省西南)을 攻略한 敗敵殲滅을 期하야 小路當部隊는 大陸村에잇는 八百의 敵主力을奇襲 이를 殲滅하엿다

一、新鄕東南方延津守備隊는 廿九日正午 同地方南方敵四百을 奇襲 敵遺棄死體八〇、捕虜十五의 戰果를 거두엇다

比律賓警察서 邦人續續逮捕

【馬尼剌三日發同盟】比律賓하라암島로부部落에서 發生한 日本人漁夫와 同島駐在警察官과의衝突事件에 依하야 日本人一名이 射殺된事件에 關하야 比律賓政廳은 卽時調査團을 現地에 派遣하야 그眞相調査에 當케하고잇는바三日馬尼剌에 達한現地報告에依하면 日本人은 그後續續逮捕되고잇스며 逮捕者는 이미五十三名에達한바 比律賓警察側은어데까지든지 事件의責任은 日本人漁夫側에잇다하야 峻烈한檢擧를繼續하고잇는模樣으로 三日도日本人約百八十名이 漁船數隻에 分乘하고 臺灣方面에 脫走하엿다는風說조차잇서 하라암島의 日本人은 相當한恐慌을招來하고잇다

日滿支經濟 新京會議午後經過

【新京三日發同盟】日滿支經濟懇談會新京會議午後會議는 午前에 繼續하야 午後二時부터 國務院에서再開 卽時討議에드러가 前後二時間에亘하야 熱心히 質疑應答을 行한後 最後로 富田興銀總裁의 人事가잇서서 意義잇는新京會議는 日滿支經濟新態勢確立上에 多大한 效果를 거두고 午後七時閉會하얏다

廣東治安確保次 軍當局에서布告

【廣東三日發同盟】廣東市內治安은 皇軍의손으로 嚴重確保되여잇는바 最近一部歸還民中에 不逞分子가드러와 良民生活을脅威하고 或은皇軍의行動을 逆宣傳하는者가잇스므로 軍當局에서는 三日如左한 布告를發하고 夜間交通을禁止하는同時에 徹底的으로市內를肅淸케로되엿다

◇布告

一、當分間午後七時부터 翌朝午前四時까지 廣東市內一般交通을 禁止함
一、市民은 絶對로武器彈藥을所有함을不許함
二、武器及彈藥을 隱匿한者를發見하면 嚴罰에處함
三、武器彈藥을 가장가까운 日本軍隊에提出한者는 相當한價格으로 軍에서買收함
四、武器及彈藥을隱匿한者를 密告한者에게는 賞與를與함

國府親蘇政策離脫
歐米依存에轉換
民間엔依然親蘇熱濃厚

【上海三日發同盟】重慶來電에依하면 當地支那側 消息通에서는 國府는 漸次 蘇聯萬能政策에幻滅을 感하고 最近은 蘇聯보다도 오히려 米國及 歐洲의 某國의 援助를 求하려고 期待하는 傾向이잇다 最近國府가 英國 말코니-系會社의 손으로 大規模의 短波無電臺를 建設하야 歐米에 直接 强力 電波를 發送하려하는것은 右事實을 거장 有力하게 說明하는것이라하고잇다 一方一般民間에는 諸國이國府에對하야 單純히同情의 意를表하엿슬뿐 何等實際的手段을 講究하지 안엇슴에 反하야 蘇聯만은 左右間 支那를 實際的으로 援助하여주엇다는 理由에서 自然蘇聯의 人氣가 全支的이라 하는 事實이다 如上의國府의 蘇聯萬能政策으로부터의 離脫에關하야 消息通 에서는 左와如히觀測하고잇다

蘇聯이 支那와의 提携를熱望한眞意는 支那를 巨大且安定하게하므로써 東方을 確立하고 滿蘇國境方面에서의 日本의活動을 牽制하는 一種緩衝國家로써 利用하려함에잇다 그런데 內部情勢가 너무複雜을極하고잇슴을알고 蘇聯政府는 徹底히 親蘇政策에 深入함은 或은 豫期에反한 效果를生하게될지도모른다는것을 무서워하고 그對支政策은 一定한限度에 制限하기로決定하엿다 他方國民黨內部에 새로운 潮流를形成 그强化에 努力하는 同時支那民衆間에 蘇聯一流의宣傳을行하기로하엿다 이對民衆宣傳은 主로서 孫科를 會長으로하는 蘇文化協會에依하야 行하여 相當한 效果를내고잇다 卽 支那學生間의 露語學習流行及 蘇聯映畵가 蘇聯의 亞細亞映畵配給協會의손으로 支那各政府에 配給되고 到處劇場에서 上映된것은그現實의發露이다 그러나 國府上層의 一部에서는 如斯한蘇聯의勢力이 恒常먼저支那過激中心分子에 侵潤하고 이로써支那自身의存立을 危殆에陷케함에 鑑하야 蘇聯勢力의侵潤을 機會잇는대로 阻止하기에 努力하엿다 如斯히하야 最近에와서는 蘇聯의援助提議가크면클수록 그만큼 도리어支那의安定을害침과 如한條件을 伴하는것이라는勢力이 顯著히增大한것도 이觀點에서보아注目된다 또中國共産黨의 勢力은決코 輕視할수업는것이나 이것이國府를 占領한다는等 說은現狀으로는 一場의夢談에不過한다

004208

支、將領南支某地서 重要軍事會議開催

【上海三日發同盟】三日重慶大公報報道에依하면 去月二十五日以來 支那側首腦長級將領全員 南支某地에集合 重慶軍事會議를開催 今後作戰을 計畫하고잇다한다

京漢線에 뚜撤去 赤色路線을建設

【石家莊三日發同盟】支那軍은京漢線南端確山 郾州間의 레-루를 撤去하야 隴海線西南으로 輸送 이를 赤色루-트敵路建設에 使用하고잇는바 最近 이레-루撤去工事는 一時停滯狀態에陷하고 撤去한레-루의 大半은 西安驛에 山積되여잇다 右는 隴海線寶鷄以西의 工事遲滯이 如意치아니한까닭이라고 觀測되고잇다

王正廷香港着

【香港三日發同盟】前駐米大使王正廷은 三日正午 香港到着 차이나클리퍼機로 歸國하엿다 王正廷은 數日間香港에 滯在後重慶으로 갓다가다서 蔣介石을訪問、米國의對支態度及 陳公甫等對米借款獲得運動에對하야 詳細報告할터이다

日曜氣配

(大阪電話商通)十二月四日

▲期米＝正米賣行不振中 이나當限高納會豫想과 最高價格引上豫想으로押目買氣含하야 氣配頑强

▲株式＝前途不透明에 氣迷深으로變方躊躇하고 動機待로氣配는 不變

大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鐘紡 [illegible] 滿重 [illegible]

◎綿絲氣配不變

八面鋒

◇明春 學窓을 나올專門、大學生 朝鮮서만一千二百餘名。

◇工科生은 三倍、五倍의 註이나 法科、文科生은 依然히 難條。

◇여기도 時代色은 發見。工業專門、鑛山專門이 創立될도 當然。

◇佛國의 勞資抗爭 化、아직도 佛國政界가 平和時代인모양。

◇戰爭을 압두엇다면 勞資抗爭이 날수가 잇나。

◇獨佛間의 不可侵條約 成立可能。

◇이 協定이 얼마쫌가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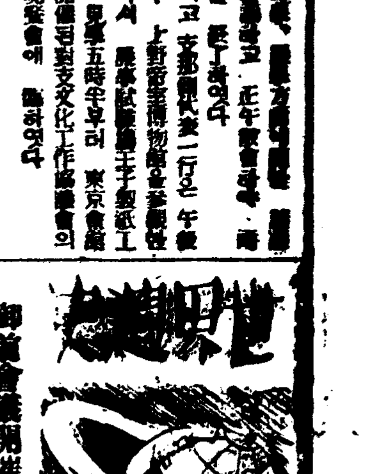
◇佛伊問題만 解決되면 한동안 歐洲가 安定하겟군!。

今日本紙四面

東亞文化協議會 第三日

【東京電話同盟】東亞文化協議會 第三日은 三日午前十時부터 東大安田講堂에서續開 人文自然의 兩科學部會를開하고 人文部會는 前日未了의 支那側提出第二案을 審議可決 自然部會는 醫學、工學、[illegible] 部會를 終了하엿다

그리고 支那側代表一行은 午後一時半 上野帝室博物館을 參觀한 다음다시 [illegible] 午後五時半부터 東京會館에 開催된對支文化工作協議會의 招待晩餐會에 臨하엿다



御前會議開催

十一月三十日午前十時三十分부터 宮中에서 御前會議를開催하야 [illegible]

明年度豫算閣議決定

昭和十四年度 歲入歲出豫算은 一日閣議에서 正式決定을 보게되엇다 그豫算總額은 二十[illegible]

南支殘敵掃蕩完了

東江南岸廣九線沿線을 中心한殘敵大討伐戰은 去月二十三日부터 一齊히 開始되엇는바 我軍은竹下部隊를 最右翼으로하고 各部隊가 提携하야 大包圍陣을形成 [illegible]

佛國議會[illegible]

[illegible]

蘇波親善外交

[illegible] 駐蘇波蘭大使 그르제포프스키ー氏와의 會談結果 二十六日 兩 [illegible]

佛伊關係惡化

十一月三十日의 伊下院本會議에서 차노外相은 一場의外交演說을試하고 그中의植民地要求를 述하얏다 伊太利國民의當然한要求라고述하엿든바 多數議員이이에 呼應하야 『튜니스를돌니가라』하고絶叫하고 다시가이다紙社說은同演說의 意味를 明白히하야 對佛蓮로도 可能하다는 强硬態度를示威하엿다 이에 對하야 佛國政府는 伊의 佛領併合을 要求한것이라하고 駐伊佛國大使를 通하야 伊外務省에 嚴重抗議케하야 佛伊關係는 又 復惡化를 告하게되엿다

理研淸酒 新世界 宿醉안는 健康日本酒 딱끈한술 맛잇는한盞 술은마실때 新世界! 大鮮釀造株式會社

全北名産 高山乾柿 全北完州郡 所陽面黃雲里 東陽産業組合

補精腎氣强壯劑 海狗腎 樺太廳官營責品 朝鮮金山府草梁町 大洋貿易社 說明書請求次第無料進呈

名著案內 朝鮮文學讀本 新人短篇集 朝鮮兒童學集 結核讀本

印刷部 石版 活版 各種ブリントポスター一般 印章彫刻 和洋紙各種 文房具諸紙類 及都散賣 滿洲國三江省佳木斯市 行德洋行 電話 一六六八番 一一六二番 二一六八番

訥言專門矯正院 丹山藥舖

朝報案內 配置

말더듬이

日出質店 高價貸付 悅賓樓옷골목

朝鮮總督府免許 粗金、銀、地金買入 一、昭和十三年十一月二十一日開業 一、年中無休、勤勞奉仕 一、鐵道、郵便換物取扱 一、一人賣金數量三貫을超過할時는品位價格早見表進呈 資本金 四十萬圓 朝鮮金商株式會社 京城府大門通二丁目八 電話本三〇〇六 振替京一六四一七

Columbia 流行歌 옹바는 風角장이 朴響林 流行歌 港口의 處女雪 金英椿 流行歌 上海로 가자 劉鍾燮 流行歌 加味夫婦湯 金海松 콜럼비아

十二月五日封切 明治座 愛の友の女 孝子の印籠 大船が音楽に新らしい分野を拓いた香り高き傑作! ワーナー・ナショナル映画 ケニイ・ベーカー フランク・マキウ アリス・ブラディ ガートルド・マイケル 共演 田舎からポット出の青年、ラヂオで一躍有名になつてさあ大變。物凄いファンの包圍を受けた。敵の主力はオペラのスター、偽令孃、オフィス・ガール等々織り出される桃色脱線物語 ドッと君乗り出す 吉田奈良丸特別出演 義士外傳堀部安兵衛生立ちの涙の物語

內科 小兒科 姜內科醫院 醫學博士 姜聲郁 電話光二六六五番 入院完備

著名人의印鑑僞造 鑛山土地等賣買
近百萬圓價格中에數萬圓詐取
無學文盲漢의智能犯

【慶南支社發】부산경찰서에서는 며칠전 무회의원인 자자 수백만원을 움직이어 수만원의 현금을 사취한 전과범을 검거하야 지금엄중취조중인데 그는경북대구(大邱)출생의 전상일(全相一)=假名=으로서 동인은 다른한명과 공모하야 경원, 경기, 경남북등의 지명인사의 인감(印鑑)서류를 작성하야 광산, 토지등을 교묘하게 매매하고 여에 백만원 가까운 돈을 움직이여 수만원의 현금을 사취하엿다는데 피해자중에는 저명한 인사와 도회의원, 부회의원들도 다수 잇는 모양으로 동서에서는 상무식한자로서 교묘한 범죄에는 적지안케 놀라고잇다한다

닥처오는歲末에 經濟警察緊張

【平南支社發】새로운활동을 개시한 평안남도경제과에서는 경제관계가 활발하여지는 연말이 닥처오자 일층긴장하여 상가에 무서운 눈초리를 던지고잇다 새로운포괄 연말가격을 무시하고 혹은 저울눈속이는자는 업는가? 금지되어잇는『연말대매출』을 암암리에실행하는 상정은업는가? 물자비트는것을 호기로 저장을 담지안코 폭리를 노리는 악덕상인은 누구인가? 불통「신전」경제경찰관의 활동범위는 넓다 일반상가측에서도 설수가 업도록대체로 주의를 하고잇는 모양이나 악의로서보다 신법령과 방식에 어두어 의식하지안코 위반행위를범하는 측도 적지안흔 모양이므로경찰에서는 이점에특히 유의하여 감시를 게을리하지안는일방 주도한지도에도 주력할것을 기하고잇다 고한다

順川郡舍人市에 鵬翼扶斯猖獗

【舍人】요사이 평남 순천군사인시 일대에는 동파게도 장질부사등 염병이 대유행하야 밖을 신음하는자가 무려 십여명에 달하는모양이라는바 그병으로생명을 일는자들도 사인의 이용갑의이녀, 삼녀등을 비롯하야 벌써수명에 달한다하므로 일반시민등은 적지안흔 공포를 늣기고잇다한다

開學期日迫到해도 學院當局無公表
載寧聖經學院悲運?

【載寧】재령선교사단의경영이래 재령성경학원(載寧聖經學院)은 창립이래 여십여년의 적주한역사를 가지고잇거니와 이학원은 오개년의 졸업연한으로 해마다 십이월달에 개강하야 일개월동안 성경을 전문적으로 교수하고잇는바 현재적생은 남녀 합하야 불통 천배여명을 돌파하야 진실로 사계에 커다란공로를 다하고잇다 그러나 금년에와서는 오는 어십팔일부터 개학할것을 지난 방학때에 공표가잇섯스나 개학기일이 박두된 오늘에도 아직 경영자측으로 학등의 재화여부에관한 공표가업스므로 때가때인 오늘이라 이것도 폐교가 아닌가? 하는 공기가 돌고잇다

學院長 韓煒謙氏談

별한사실에 대하야 한의원씨는 월바한 기자에게 아래와가튼말을 하엿다 『개교여부를 아직 말할수업습니다 아프로 결정되면 귀지국에 통지하오리다』

擴大되는鐵道談合事件
關係者뒤를쫓차 刑事隊滿洲로急行
龍山서三名押來嚴調

【慶南支社發】누보―부산경찰서에서 적발하야 취조중이던 토목사 담합사건은 취조진행에따라 그 범위가 점차 전조선적으로 확대되여 갈뿐아니라 만주방면에까지 비화해가는데 지난달 이십팔일에 경성방면으로 관계자를 부잡으러 떠난 북정, 소양양 형사대는 용산서(龍山署)의 응원을어더 대활동을 개시하야 일류토목업자세명을 부산에압송하는일방 다시 관계자가 북조선, 만주방면의공사관계로 출장한 뒤를 쫓차서 북조선을경유, 만주로 떠낫스며 부산에 압송해온 관계자는 지금 엄중취조중인데 이사건은 갈수록 확대되어 그취조진전이 매우 주목된다

第二次志願兵 入營은十日頃

【咸北支社發】이기록렬 제지원병의 전형시험(銓衡試驗)은 끗낫스므로 남은것은 입영(入營)의 시기가 기달려지고잇는데 십구사단(十九師團)에관한 갑부에서는 금월십일 전후하야 입영을시킬것을 발표하얏다

咸北道의更正豫算 無慮五百八十萬圓
空前의尨大豫算突破

【咸北支社發】함경북도의 소화십삼년도예산액은 당초에 사백오십삼만원이든것이 지난번에신설된 웅상어항(雄尙漁港)의 축항비가 느러서 오백만원을 돌파하얏든것이 이제 또다시 증액되야 총액오백팔십만원이란 방대한수자를나타내여 함북의살림사리가 얼마나 놀라운것인가를 알려주고잇다

증가된이유는 지난번의장고봉사건(張鼓峰事件)으로 피해보지방의복구비와 그뒤에일어난대수재의복구비가합처진것인데세입의 부족이 엄청나게 느러난 대신 그구멍을 메울 방도는 복구비의 일부에대한 국고보조와 도로저의 기채(起債)로 충당하리라는데 기채할 금액에 대한상환자원(償還資源)여부가 아직알려지지 안어 궁금하다

淸州農校舍竣工 來七日落成式

【忠北支社發】작년도부터 신축중이던 청주농업학교교사는 기간 준공을보게되여 월여전에이미 이전한바이며 오는칠일오전십일시부터 동교정에서 낙성식을 성대히거행하기로되엿다한다

公定價審議決定 第二次棉、毛製品等
來八日物價委員會서

【全南支社發】전남물가위원회에서는거번에 제일회로 회합을하고 가정연료인 연탄 목탄 신탄등의 공정가격을 결정하는동시에 잡화물오십여종의 공정가격을 결정공포하엿다함은 기보하엿거니와 동위원회에서는 제이회로 오는팔일오후한시에 도회의실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이차로 면모제품(綿、毛製品)등오십여종의 상품을 심사하야 공정가격을 결정발표할터이라한다

咸鏡線延着續出로 沿線住民大不平
"따이야"再編成도絶叫

【咸北支社發】지난여름의 수재가잇슨후 함경선(咸鏡線)의 노선은 각처에 치명상을바더 이때문에 수송력의 손실이 막대하얏스나 그후 점차로 복구된 오늘 아직도열차운전은 매일그 시각이 정확치못하야 때로는급행열차가 두시간세시간 연착되는일이잇서 화물열차의 연착은 말할여지도업시 낙참하야 일반의불평은 절정에 도달하고잇다 이제 주된 원인을드르면 지난시월부터 개정한 새로운『따이야』가 완전치못해 적당한 활용을 못하는때문이라하는데 언제까지든지 이가튼불편을 일반에게 인할것이아니라 빨리 대책을강구하라는 요망이만허 함경선철도의 "따이야"재편성이 기대되고잇다

因襲打破目標로 市內에"삐라"撒布

【馬山】마산부에서는『장기항전은 생활개선으로부터』란는 표어하에 부내조선인측에선전"삐라"를 배포하야 구여폐지로 신려실행 색복착용 초혼폐지등 구습을 타파하도록 강조하야 비상시국민으로 장기항전의 적성을 발휘케 국력 활동중이라한다

細窮民救濟對策
方面委員四十名增員 生業相談所도設置

【慶北支社發】대구부에서는 여태부내세궁민에대한 사회시설을 그다지 중대시하지안코 오든중 금년봄부터 시국의 변천에따라 그필요를느끼고 불과삼명밧게되지안튼 방면위원(方面委員)을일약이십삼명에 증원한후 방면위원조성회(方面委員助成會)를결성하야 그구제에전력을 집중하든중인데 지난시월일일부터 실시된 구역확장에따라 일약인구는 십칠만으로 증가하는동시 이에따라 세궁민의수효도 증가하여젓스므로 부사회계에서는 명년도부터 다시 위원을사십명에증원하는동시 세궁민의 생업상담소(生業相談所)를 개설하야 방면기일면을 증원하리라고하는데 이기회에 종래의 구제방침을 일척하고금후는 그네들의생활지도에 전력을 다하리라고한다

生辰費用節約해 社會事業에寄附

【伊川】강원도 이천군 이천면 천안리(伊川郡伊川面泉岸里)노재민(盧在敏)씨는 효성이 지극한 모범인물로서 자기의 모친 생신이면 반드시 크나큰 잔치를 배푸러서 동리사람과가치그어머니를 기쁘게하고잇섯는데금년은 특히 생신날인 지난이일에 모든비용을 절약하야 다음과가티 사회사업에 기부하엿다는데 일반은 노재민씨의 효행과 독지를 칭송한다고한다

◆伊川防護團 二十圓◆伊川西小學 五圓◆伊川國防婦人會 五圓◆伊川基督敎會 五圓

貨物車에小兒轢死

【牙山】지난이일오후두시경에충남천안읍(天安邑)에 영업소를둔 충남자사백이십오호 화물자동차를 운전수박모(朴某)가 운전하고아산군음봉면거산리(陰峰面巨山里)에가서 장작을 실고오던도중동리 거산간이학교 훈도 유병두(兪炳斗)씨의 차남 재민(載敏)(六)을 치여약두시간 만에 무참히도 절명케하엿다고한다

伊川佳榮洑認可

【伊川】강원도이천군방장면 가려주리(方丈面佳麗州里)오십만평의 토지개량과 수리사업에 대하야는 당지주민들의 다년간염원으로 일반기업가의 여러손으로 설계를하야 모도가 실패로 도라가게되엿다 작년 가을에 경성주태도(朱泰道)의 경영으로 가영보(佳榮洑)공사의 인가를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진행하야 금년봄에 오만원의경비로 제일구계획중의 완성을보고 금년에오만평 명년에십오만평 십사년에 이십오만평의 토지개량계획을 진행중 지난오일부로 강원도지사로부터 가영보의 정식인가가나렷다는데 일반주민은 자못기대하는바가 크다

明年度全南豫算
四百餘萬圓要求

【全南支社發】전라남도에서는전시체제하의 소화십사년도 예산편성에대하야 여러가지로 고찰하는동시에 각과의 요구액을지방과에서는 종합하야 그를신규사업요구서를 작성중이바 그총액은사백수십만원으로 시국에적응한농자원의 자원확보등에 노력함으로서는 공유화장안과 농촌진흥으로 남총독의 근본방책임으로그를 추종할방침하에 예산편성을할터이라한다

金海郡下에强盜
明洞峴서行人의金品强奪逃走
金海署서犯人嚴探中

【慶南支社發】년말을 압두고범서부터 경남도내에는 강도가출몰하야 취체당국의 머리를 진장케한다 김해군이북면 시산리(金海郡二北面詩山里)동에 여범회(呂凡會)(三)씨와 김재권(金載權)(三七)양명은 지난이일 오후예가시경 진영(進永)으로부터 도라오든중 동면명동(明洞)고개에 이르럿슬시 돌연괴한이출현하야 두명을 모두구타한후소지금 삼십여원을 강탈도주하얏다는데 이급보를접한 소할경찰서에서는 곳 비상선을펴고 범인을수사중이다

貨車太不足으로 大豆出廻支障

【咸北支社發】만주특산품인 대두의 나진 청진에의 출회는작년보담 약한담는지서 금월도부터 시작하리라는데 어대두를외국에 수출키위하야 삼정(三井)『와잣트』『미레프스』의 각취급점에서는 일반대두이상의배가 유와어나엿던한것이엇는데 따한일은 대두를실어올 도가선(圖佳線)방면의 화차배급이 대부족하야 업자의 불안은 여간 아니라한다

예정가는면 만주대두만을 운반하야날 화차수효가 이천이삼적하로 유칠십차나 되여야할터인데 요즘은 겨우삼십차 내외가 운행할뿐으로 업자가 초조할만하다한다

母乳不足을悲觀
含淚코愛女絞殺
가난이비저낸慘變

【全南支社發】전남영암군영암면장암리(靈岩郡靈岩面場岩里)사는 문선남(文善南)(?)은 그가낫코데 외(外)(?)이가 자기의젓부족으로 굶주어조치못함을 항상비관하여오다가 지난 선일일십중일에 "너와가튼 인생은죽는것이 오히려 행복이다"하고 죽여버리고 병사한것으로 가장한것이탈로되여 소관경찰서에 검거되야 방금취조중이라한다

森林保護目標로
愛林稧設置計畫
百四十七部落에一個式

【牙山】충남아산군 삼림계(森林係)에서는 삼림을 보호키위하여 금년도부터 명년도까지 이개년에한하야 아산군내 일백사십칠개소에다 애림계(愛林稧)한부락에 일개소씩 설립하기로되여방금진행중이라는데 동계의의원은 그동리마다 유력자면여씨을 선택하여 계장이하역원을 선정한다하며 동애림계의 취지사항은 아래와까다한다

一、林野의保護取締에關한件
一、燃料節約의關한件
一、農用林産物增殖에關한件
一、濫林及伐採에關한件
一、林産副業奬勵에關한件
其他數十種

004209

照明彈

◇황해도송화(松禾)군하 각면에는 면화 공판 문제로 민심이 소란하다고。

◇그까닭은 금년면화 공판수량이 군예정수량에 달하지못한다고 군관계원이 총동원하야 생산농가를 차저다니며 가택수색을 하는데잇다고。

◇물론 시국인식이 부족한 농가에서 공판에응하지 안할도리 잘못이겟지만。

◇그러타고해서 강제로 가택수색까지 한다는것은 너무심한일

◇모름지기 군당국은 먼저 무식한그들에게 시국인식을 철저케해서 자발적으로 순응하도록함이 위정가의 도리가 아닐가

地方人事

◆村上乾己氏(新義州府尹)退任人事次同令夫人本社新義州支局來訪
◆森井氏(全南産業株式會社取締役社長)新任人事次本社全南支社來訪
◆李成漢氏(同社專務取締役)同上
◆野本常太氏(同社取締役支配人)同上

鎭南浦府會서 不正事實暴露

【鎭南浦】진남포부 제오십회부회의는 예정과가티 지난삼일오후한시반부터 부청누상에서 개회되여 소화십삼년도제팔회추가예산개정에관한것을 비롯하야 기본재산처분건등원안을 원안대로 가결한후 경사위원 김병근(金秉根)씨의 보고중 소화십삼년도에 임항재련소에서 동회사인접 측 박금 일산화학회사공장이 설치되는 토지 팔천여평을 일원씩에 매수하기로 가계약까지 하여두고도 실행치안허 금번 일광회사에서 평당삼원씩이나받고 팔렷다는것과 모회사에서 부당국에 십만원을 기부하겟다는 증서가잇슴에도 불구하고 그역시 돈을바더드린일이업다는보고가잇스며 조정호(趙定鎬)의원은 그와가튼일이잇슴을 부당국자가 지금까지 은부지하고 잇스니 그책임이누게잇느냐고 질문하매 장내공기는 돌연긴장하여지며 부당국자들은 듯기에도 처음이니만치 망지소조하여즉시 실지조사하여 보겟다고한후 폐회하엿다는바 부당국자의 부주의로거액의 부유재산이업서지게된 중대문제이니만치 금후어떠케나 귀결이될지 매우주목되는바라고한다

蔡、申兩歌手 港座에서公演

【鎭南浦】채규엽 신회춘(蔡奎燁、申喜春)양씨를 수반으로한바 "짜스밴드"단일행 이십칠명은 사, 오양일간 진남포항좌(港座)에서 공연키로되엿다는바 채, 신양씨는 진남포에 처음이니만치 만흔기대를 갓고잇다한다

肺病全快法

사람이肺病에 걸렷다하면死刑宣告나 바든것처럼 悲觀해서, 藥과器械만으로 病을治療하려고한다 그것을믿기로 無効한藥과器械를 敗賣하기도하고 여러가지廣告로 弱한病人을 弄絡하는商人이만타 詐欺師가 아모리 거지말을하여도, 藥장사가아모리 甘言利說을 내거러도 속어서는 안됨니다 結核菌을죽여서 肺病을治療한다는藥과 注射와 器械는 아즉 世界어데서도 發見되지못하엿습니다

肺病은治療된다

肺病은 다만自然으로도라감으로써 治療됨니다。若草가 맹동하는土壤, 淸澄한물, 淸潔한空氣, 끌고루비초이는陽光, 自然의草根木皮거기에는 肺病者를救할偉大한 慈愛의손이 펼처잇습니다。

그릇된養生法

治療할수잇는肺病이 왜안낫는가? 그것은 貴下의養生法이 잘못되엿기때문입니다。貴下는 日光療法을 잘못하고 잇지안습니까, 自然을 防害하는藥과 器械를쓰고잇지안습니까 물은, 흙은 空氣는……。

正當한療法

肺病으로 알는이는 只今곳『朝鮮日報で見た本下さい』라고 써서葉書로 左記의寺로 보내주시요。釋迦님의金言을 基礎로해서正當한治療法을 가르친, 松永佛骨師著『治療の原理』와藥草療法『光明のあなたへ』의二冊을……。

無料送呈 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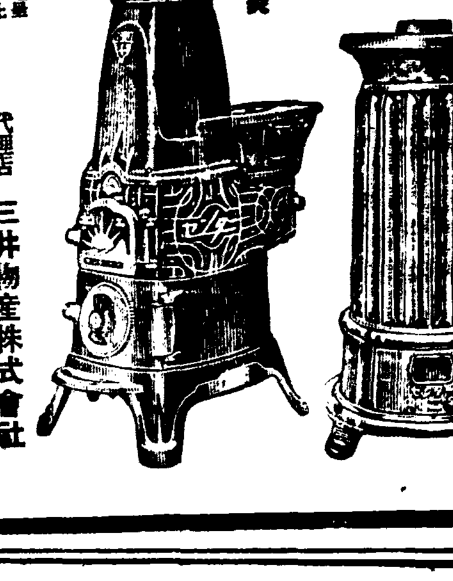
빨리 이 가르침을바더 알는몸에생각만해도 그리운 元氣잇는 옛날로 回復되여주십시요

大阪府布施市 功德山 德林寺

陸海軍御用品 最新型

セ ン タ ー
쎈 타

代表的스토ー부



石炭焚　薪炭兼用　光榮

特約店
京城府蓬萊町 山本最商店
京城府本町 昭和商事株式會社
京城府西界町 釘本商會
六三本商店

製造元 株式會社
代理店 三井物産株式會社

種各 寫眞機
反材料一式
カタログ進呈(要四錢切手)
中古機械レンズ類
買賣交換酬應
京城府西大門町
東亞寫眞材料商會
電話光化門二〇六八番

無料로通知함

喘息

百日咳의분에게 저는永年頑固한喘息으로죽도록고생하야 온갖藥을써보앗스나 모다아무効果도업서 十餘年來勤務한鐵道를 病때문에辭退하지안호면안되는不幸한身上이되엿습니다 그러나偶然한일로이번에 名高한高野長英先生의遺方으로된妙藥을先輩에게서天保年間의偉人으로된 妙藥을(?)服藥하야 白髮숨찬기도 끈치고痰도업서저 그럭저럭病症도 이상하곳全快되엿습니다 너무감사하야 同病의知人과兒童의百日咳에도試驗하야보앗더니 모다저와가티全快되야感激의말을하엿습니다 기침病으로 괴로워하는분은곳 葉書로申込하시요 住所氏名을 記入하야주시면無料로通知하겟습니다

廣島縣安佐郡龜山村 森本作市

御實用は時局柄 文友會館
安國町 以文堂三階
電光③二七〇一

D68
世界最良粉乳
森永ドライミルク

愛兒야말로자라나는 新日本의姿態―
굿세고明朗하게기르라
消化가조흔榮養이만흔森永ドライミルク가얼마나당신의에기를무럭무럭자라게할것인가놀랄만합니다

森永煉乳株式會社

美味滋養 調味料
カゴメ 가고메
ケチャップ 게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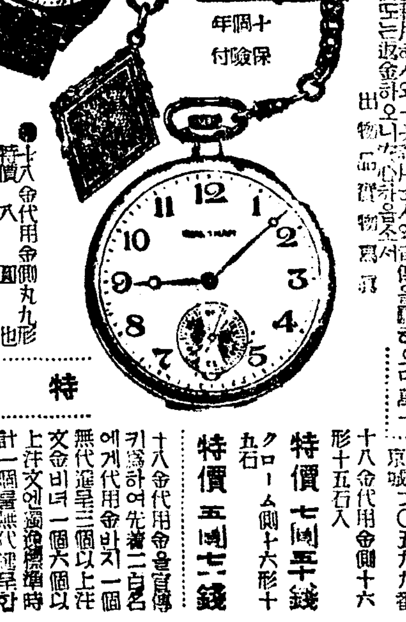
料理가맛난것은 이거다

어떤料理에나 치면맛잇고 따뜻한家庭의 치킨라이스에도 업서서는안될 調味品

食料品店 百貨店에 잇습니다

カゴメソース本舖
愛知トマト製造株式會社

十八金代用金側萬人向特選標準時計



クサリ メタル サック 付
十個年保險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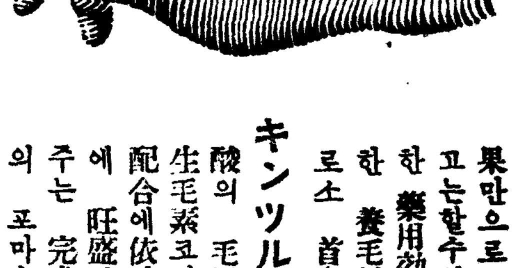
●驚異的大好評●斷然人氣集中 限下非常時에合理的大衆向으로世界에一大發明新金色同樣不變十八金代用金이出現하엿슴니다 品質良好하고 亦是値段도低廉하야 現代人의 必要品이오니 ...에 ... 交換도 ...返金하오니 安心하시와 ... 御注文하시오
出 物品 代物價 返

先金注文送料不要
京城特 二〇五九九番
十八金代用金側十六形十五石入
特價 七圓五十錢
クロ―ム側十六形十五石
特價 五圓七十錢

特典
十八金代用金을宣傳키爲하여先着二百名에게代用金바지一個文金비녀一個以上無代進呈三個以上洋文엔쟁이標準時計一個를無代進呈합니다
クロ―ム側丸形 特價八圓也
特價 七圓八十錢也 十八金代用金側丸形九形

新義州府初音町二十二 郵便局私書函四十六號
歐米洋行時計部

兒童文學集發賣中
定價一圓二十錢 送料二十二錢



拔毛・フケ・痒み

포마―드는整髮効果만으로 完全하다고는할수업다 顯著한 藥用効果를 具備한 養毛料라야만비로소 首肯하게된다

キンツル는純脂肪酸의 毛髮榮養料와 生毛素코에스테린의 配合에依하야 毛根에 旺盛한發生力을 주는 完成된新時代의 포마―드입니다

30・45・60・120전

金鶴ポマード
포마―드
本舖 株式會社野村商店

映畫는日活
一日より特別封切
◇日活超大作
續水戶黃門 廻國記
阪東妻三郎 片岡千惠藏 江川宇禮雄 嵐寬壽郎 山本嘉一 伊澤一郎 外東西合同 總出演
◇P・C・L特作
いとしの アデリン
アイリン・ダン ミュージカル・メロディ 主演
◇日活多摩川特作
江戶前結婚
山本禮三郎 浦口 ・・ 上代芳吉 主演
◇朝日パテーニュース
偕樂館

冷暖房完備 東洋劇場
電③二五〇四 3640(事務室用)
◆청춘좌공연◆十二月三日밤부터
男女七歲不同席 二幕
마음의 眞珠
流浪三千里前後篇大會
◆그가는눈도른기에한정한목숨 ...

一日より特別封切
◇東寶超大作
鶯(うぐいす)
伊藤永之助原作 豊田四郎監督
◇パラマウント特作
ジョージ・アシャンボ
金髮騷動
エリノア・ホイットニ ジョニイ・ダウンス
◇パラマウント特作
少年ドン キホーテー
讀賣 京日 ニュース
大劇・平壤

집집마다한권씩
少年送年號
單 十錢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松竹映畫
一日より六日間
松竹大船特作
西海岸の娘達
佐分利信 川崎弘子 ...
新興京都特作
森の石松
第一線の人人
大毎ニュース
キネマ

(小)(論)(文) 魯迅에對하야

城大 李明善

魯迅은 처음에 人生을爲한文學 社會를爲한文學을 目標로하고 그의文藝生活의 第一步를때여노엿든것이다。이것은 一九三三年에쓴 「나는 어찌하야 小說을쓰기始作하엿나」와 大魯迅全集改造社版의序文에 魯迅自身이 告白한바다。

人生을爲한文學 社會를爲한文學 卽 文學은 文學을爲한文學 卽 藝術至上主義者와 根本的으로 對立하는것으로 이思想은 人道主義思想과 密接한關係에잇서 熱烈한 人道主義者 『톨스토이』는가장 勇敢한 이主張者엿다。그때의 魯迅도 아마漠然하나마 이 人道主義的立場에서 社會改良의手段으로 文學을 利用하려하엿든것갓다。

그러나 社會를改良할려면 먼저 그社會의腐敗相을 摘發하야 攻擊하지안흐면 안된다。그當時의 支那에잇서서는 勿論封建的思想과 慣習에對한 摘發과攻擊이다。魯迅의 『狂人日記』 『孔乙己』 『藥』 『明日』 『頭髮의故事』等—『吶喊』에 收錄된小說들이 모다그것이다。이小說들은 『吶喊』이라는 書名그대로 封建的思想과慣習에挑戰하야 가장辛辣한諷刺로써 調笑를퍼어씨워 조곰도 假借함이업섯다。世界的으로 有名한 『阿Q正傳』도 이때에쓴것으로 主人公阿Q는 支那의封建的思想과 慣習의 人格化한것이라고도 볼수잇는것이다。

그러나魯迅은 『阿Q正傳』以後 漸次로 『彷徨』을始作하엿다。人生을爲한文學 社會를爲한文學에서 文學을爲한文學으로 발을돌이기始作하엿다。이때에쓴小說을 모아논 『彷徨』을보면 魯迅의이 움직임을 알수잇다。魯迅은次次로 그의題材를 一般大衆에서 知識階級으로돌리고 憂鬱과沈滯속에빠저 生新한生活感情이 말할수업시 稀薄하여젓다。이에딸어그의 『리아리스틱』한붓도 形式主義 技巧主義로흘너저서 『幸福한家庭』 『비누』等에서처럼—『맨스필드』의短篇을 聯想케하는 家庭속에 蟄居하고잇는 小市民의 때때의 氣分과 微妙히 옴직이는心理를 描寫하는데에 그리고 『토끼와 고양이』 『거위의喜劇』等에서처럼 童話的世界를 極히技巧的으로 表現하는데에 그의文學的道를 찻으라고하엿든것이다。

『吶喊』에서 다시도어데로!어데로 『彷徨』으로『彷徨』에서 어데로 가? 勿論거기에는 새로운아무것도 잇슬理가업다。그여히그 길도 小說을버리고 隨筆로逃避하여버렷다。이때에쓴隨筆을모은 것이 『野草』다。魯迅은그여히 滿足하게되고 野草로서 滿足하겟다는것이다。이속에는 灰色의過去만잇고 生新한 現在는 조곰도업다。未來에는 오로지 墳墓만이 기달인다。『野草』속에서 魯迅自身이 이것을告白하지안햇든가! 彷徨하든魯迅은여기에서 岐路彷徨에매는 疲勞한발을멈추고 아무理想도 希望도업시 過去를回顧하고 厭世的憂鬱의 世界가잇슬뿐이다。沈滯와孤獨과 虛無의 世界다。

이러는동안에 한편支那의 社會情勢는 急激히 進展되여서 文壇에서는 創造社의 『創造』이잇서 人心은 極度로 緊張하여지고 興奮하여젓다。그리고 『阿Q時代』는 이미갓다。벌써 그것은 예전일이다。우리는 우리의 時代를 알고 가진다。『阿Q를 장사지내지안흐면 안된다』는 소리가 詩壇에서 絕叫되엿다。

그러나 勿論 이때의 魯迅이 이러한社會의 情勢와 自己에對한 非難을 正當히把握하고 理解하기는 到底히 不可能한일이다。그여히 『醉眼朦朧』을 잡고 대하야 그의固陋와無識을 그대로 暴露하고말엇다。元來 文學家 魯迅의 文學에의傾向은 文學家와 그를圍繞한 社會의 進展과의 非常한隔離에서 發生되는것이다。往時의 第一線의闘將 魯迅은 이리하야 이때에 敗殘兵의 悲慘한꼴을 暴露하지안흘수업섯다。

누구나 다알드시 이때 魯迅은 그때까지의 小市民的 『이데오로기』를 깨끗이 淸算하여 버리고 다시支那文藝運動의 第一線에 參加하야 죽을때까지 멋번이나 그의巨筆을 揮하엿다。여기서 우리는 魯迅이 人生을爲한 文學 社會를爲한 文學을 目標로 文壇에登場한 그의 『吶喊』時代를 다시생각지 안흘수업다。或은 어느 意味로는 魯迅은 다시 人生을爲한文學 社會를爲한文學으로 도로돌아갓다고도 볼수잇기때문이다 하지만 支那의急速한社會的進展은 이때그를 往時의人道主義로 돌려보내지안코 도리어 그때처럼 偉大한意義를 가지고 잇든 것도 아니고 『五・四』時代 魯迅의 小說은 『吶喊』 『彷徨』속에 大概收錄되어잇고 이外에歷史小說이 멧편잇기는하나 이것은 모다 그가 一九二七年以前의것이오 정작그以後에는 더구나죽기前數三年間은 『손으로 쓰는것보다 발로逃亡하기가 밧버서』 往日作만한 단한篇의小說도 쓰지못하엿다。

「山夜」—詩

開城商業 徐泰鍾

부엉이 우룸이 凄凉하고
잠잣는밤가려 아슬한 예뻤은
絕壁에 고딩든 넉슬
부질업시 애끄케 하오。

갈대피리를 구슬피 불며
고요한 밤을 주름잡는 내
마음은

한낫 永遠의 情熱을지인
聖畵미테서
合掌에 고히 잠들려 하
네。

달이 眞空우에 안은 외로
운 꽃닙니니
메뿌리에 앙상히 흐튼 달
빗마저
내 서룸인냥 하야
어둠속으로 소리업시 사라
짐니다。

다시거러서……(詩)

京畿中學 崔載亨

한낫 『꿈』의 퍼비린 아
우성소리 들릴이 거러
에도
이제 소리업서 흥얼이 숨
여들면
疲困한 무리들—生의 나
그네는
또 공앗만한 바램도 업
시 슬픈行列을짓나니……。
한여름 情熱에 지처버린 街
路樹의 꿈도이제는 거리 침
쓰리온 회오리 바람에 떠
밀어 날넛고

어낫 거리의 집씨의 子
孫들은
落葉을 밟고만 갓다。
려덥이는 발뿌리에 무거
운 怨念을 끌고 한사코 이
지러지려는 마음 것잡지못
한채 쓸쓸히 도라가는 이
거리의 나어린詩人—
어떤도 풀지못한 生의課
題를 거리에 무더두고 오
오 한숨짓는 眞理의 探求
者여……。

巡禮—詩

延專 白仁俊

봄이되면 지내온 흥분을 안게
흔들어
嘆息에 잠들어……
落葉에 젖은 나의 그
림자는
귀거리 젖어졌다 다시키
지고
회파람은 멀리 벌을 뚫
자 갓다。

窓밖에는 바람이 차고
방안에는 音樂이 가득합니다
『보레로』의 가는다란 旋
律을 쫓차
불르트 떨린 나의 어린 魂은
드디어 다드미소리에 갈기
갈기 찢겨
바람을 타고 떠나갓습니다
!눈이 차이기전에 다 차
저와야지오—
하며 떠나가더니
햇숙한 얼골로 돌아왓읍니다
눈물자국이 얼룩진 채우에
바르르 떨리는 입술을 가
저다 대는 나의 가슴으로 조
르르
빨간 피가 흐를뜻 흐를뜻
못흘읍니다
(一九三八、一一、一一)

學生模擬新聞

中專篇

社說 抗辯

……파란 하늘과 붉은꽃 많은 달만 노래하는 現實을 蔑視하고 거꾸로잡어도 너는오히려 幸福하리라……

우리가 憧憬하고 重修再建策할 文學의公道는 精神은限없이 弛緩되엿스며 文學或은藝術에對한 情熱은 完全히冷却하야 바야흐로 滿身에驕傲을안고 余갑비 肉迫하는 肉體가잇지안는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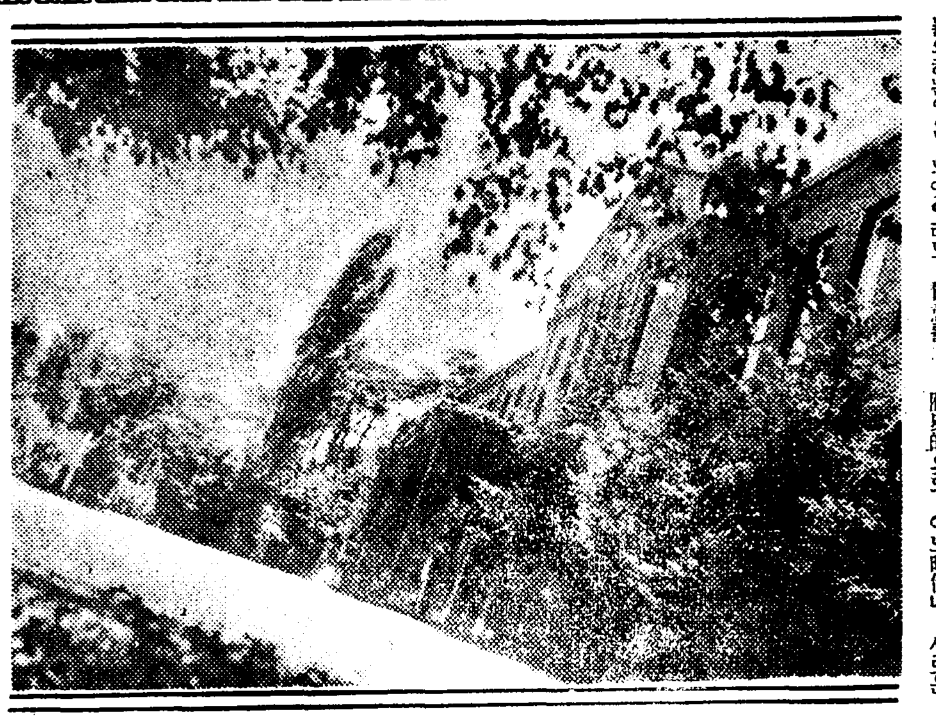
人生에對한 生活意欲과 文學에 對한 藝術意欲의積極性은 어느결에 喪失해버리고 自己스스로만든 알미운世俗的인 興俗의深淵에 陷되여 思想의貧困 또는 知性의 貧困에서 그完全한苦衷에 嘗意한지 오래다

『自己는靑年을 사랑한다 그들의希望과 熱誠을 사랑한다 그들의 懷疑에 同情하며 原則으로 靑年들의하는일은 무엇이라도 賛意를 表한다』란 주리안、바라의 센치멘탈한辯辭를 無謀하게 羅列한다

그리하야 우리는地位 名譽 偏見 허된優越感을가진 그들과 (全部야아닌一部)는 맺어진因緣을끈허야한다 不純한血型을가진 祖先과 血統을끈코 傳統을끈허서 淸澈하는 靈魂이 體驗해노혼 寶物塔과 客觀的인 怒濤와風雨에 시달릴대로 시달여서 釀出된 生長시킨 새로운創作意圖 참된藝術意圖를 傲慢스럽게 排出시켜야할것이다

보라 어Dilemma를 浪漫의風勢 寫實의驟雨 흙매니즘의 落雷 知性重壓의때쨩 世態描寫의感電! 그러나 젊으니여 歡喜하라 이런 디렘마에陷케한것은 그들의歷史的犯罪라하면 이를打開하야 새로운文學 明日의文學을 建設하여야한다는것은 우리靑年의 歷史的任務일것이다 여기에는 逆說이잇다 詭辯도잇다 아모런든 微溫的인 實驗主義的安當性을 無視해英斷的인 冒險이 必要하랴할것이다 歷史的으로 어느時代나 새로운文學運動이란 그時代精神을拒逆하고 常道를어긋진 異端的이데서 出發을하게된다 卽 善良한風俗習慣으로서 思想 行動 또는 情緒라는것은 賦與된時代와 社會에만存在할수잇다

傳統的인乃至 絕對的道德에反하는것 道德이아니고 單純히感性의 傳統에反하는것이그의歷史的見地에서본 創作理論이다 이에는 勿論藝術의生生한氣脈이 물결치고잇다 現實에執着하야 合理的世界만을 肯定한다는것은 一種 虎疫일것이니 새로운文學運動의 生命的인流血的인一種으로서 이 데카단스文學 (醜態藝)로 超現實 따따 抽象逆說은 우리에게 만흔示唆을 賦與한다



「山峽의달」—詩

文三 金達鎭

디 오른 山峽의 스무날 달이
희황한 별무을 둘러보한다
◎……◎
너는 바위돌 속에서 운다는
나무닭의 우름소리에 귀를 줄수잇늬?
◎……◎
星宿의 숨길을 脈搏집고며
러지려는 創造神의 배꼽을 움켜쥐고 엿슬수잇늬?
◎……◎
오、 누구의 입김일가
문득 울듯한 마음은 薔薇色
실날가튼 地軸을 어루만지며 쓰러지네
◎……◎
언특에 한포기 싹듣한 새꼿가타
바람에 불리우며 불리우며
◎……◎
남모르는 고독한 서름의 꿈을
자다나와 바람에 어리우노라

十人一句集 젊은世代의行方

비奏曲으로 어둠에헤매노니 오! 푸로메슈ー쓰여! 그들에게 淸淨한 情熱을주라 文一 趙東阜

모주리 모주리 불살러 버리고 새人間을 蒼際시켜 새로운宇宙를 創造시키라 文二 韓炳駿

서슴지말고 飛躍하자! 새世紀로—젊음에잇서서는 躊躇는 罪惡이여! 웨?치워를 그리도 두려워하는가? 치워가지난後 따뜻함이잇는줄을 모르시는지! 文一 金哲埈

蛇의 어금니보다 무섭다

地軸을 내 주먹으로 휘여잡고 世上의 모든것을 혼자로 責任지려요 文二 洪庭植

煉汁을 뽑아 地獄에 품어볼가

現文壇의 모든無精을 一掃하고 文一 金泰益

文二 孫商鉉

洛淸한 新潮의 飛躍的曙光을 企待한다

再建하라 永遠한 판도라의禍를입고 그에게咀呪를 當한다하드라도 푸로메슈ー스여 天火를훔처 興한다 文三 金魚水

七十萬射 生活 强者 당신들 驛依處니 覺皇寺 如來님 絕代를 痛哭하오 文三 金斗炯

就職! 地獄一丁目 閻羅大王의 消化不良에 至急히 居士 五人이 入用 那何那何? 文三 李尙鉉

多辯을삼가하라 富權那의能辯보다 自衛의沈默은 서슬이 무섭다 文三 羅基鏞

數字中毒

……統計局……

◎一〇、〇〇〇圓! 一萬圓짜리 高麗大藏經을 陝川海印寺印刷部에 注文! 그러나 一萬圓이란 赤字가날려로 中止 關係課主任의 落淚가 一萬滴!

◎三十四! 大學專門學校 削髮令이 내린지 滿一年하고 三十四日! 오늘은學長五冊의中學族들이 三十四名! 眼鏡쓴學生이 卅四名!

◎參! 校舍正面에 三法印 講堂正面에 三歸依 學生全體는三個年! 三字와는 不可離의因緣!

◎一百四十五圓六十錢! 이數字의 財産만잇다면 北滿으로가는移民이 九萬九千九百九十九戶 (一年十萬戶로換算)로 減하야진다 이는 우리學校生徒의 身邊의金屬品 (단초九個帽章帽子단초)을말한 어버리財産이다

母校讃

陳腐한 世紀를 가벼히
笑하며 戀鍊하야한 깃을
다닥!
일어나 힘세게 날러라!
蒼空으로—
날카로운 눈초리로 太陽을
울어러보며 구셴날개를 저
空間에 펼때
동그란 地球는 눈아래
踐되다
無限히 延續된 날러란—
며萬里나—아모리 날러도
거침것 업나니 圓舞—圓舞—
새파란 누리를 안고 다시
날러라 날러라
발톱에 찍이인 생채기
星雲을 다시星雲을 헤치고
銀鑒우를미끄러지는 舞姬처
럼 輕快히
滑走—滑走……水星 木星 火
星—海王星 또 한번 어
디로갈거나 날러라
灼熱하는 情熱이 가슴에넘
처
내自由스런 오롯한平和의나
라로—
旋回—旋回 해와달 별 새!
새로—
젊은날개를 지닌날까지
지금어타도 뜻하지안흔 화
살이날러 몸을 바든 날
개가 꺽기여진다해도
……나는 나의 活氣스런
生活……
무름 天池로 沈沒하리라
……날개……

文……孫商鉉
金泰益
寶……洋洋

單編小說 百日紅

文一 金容泰

달이 옛어야기가티 밝은밤이엿다 선녀하늘과 남녀하늘에 수업는별이 떠별들은 하늘은 투명스레 해맑다 별들은 신의 어지러운위무에 꽃처럼 정답게 베프러젓고 산은 온순한양떼처럼 멀니 가까히 미끄러저서 정적을 적키고잇다 은행나무그늘은지나 적으로수가에 일은때는 물은 잔물결을 일우워서 어린금붕어들이 꼬리와 꼬리를 물고 헤엄처 몰리는것처럼 금빗은 빗으로 빗낫다

공간으로 어려케청조한자리에서 시간으로 어려케 아름다운시간을 맛보면서도 웨? 어린도 괴롭고 아니 울고시픈 충동까지에 사로잡히는가!

래일은 저 은행나무와 이호수와 저 도야지우리가튼 호(胡)인의집을 뒤로두고 서울로가 버린다……

……다른것은 아무것도버려도조타 그러나 남색옷을입고 귀고리를단 그호인의딸을 버린다……

방학동안 내가그만보면 온리지의지 서서는 한 호일림 초점에 집중되고 온누리가 지금끗이라도 마사진다하드래도 나는 그와 나란히섯다고만한다면 두려울리가업겟다 정말 그는 나의 넋의 바귀로서 환영이엿져 괴로툼 몰으는 순레이엿다 그러나 사심스러고백은 일언반구를 거피하엿다 무엇보다 우리사이에 어제까지 말한마듸 난호지아니하엿다 어느때는 말을이쿠기로 지나어동감을 주문하야왓다 그러나 그날저녁 내가 그의손을 한번잡어보자 그는 그만달어나버렷다 그래하야 내가딸을빼도다면 금단화원의 순정스런 히엽은 캐트리질것가튼 조바심으로 그책을 몰끌히버렷다

아직 그는나오지안엇엿다 그의 아버에게 래일은 서울로간다는말을하얏은니 오늘밤은 일직어나올런데……

어느새 왓는지 내뒤에는 그가 와서 아모기척도업이 고개만떨어처고 서잇섯다 나는 그의달덧그림자를보자 말조처정부러 정처하기시작하얏다 달그림자가 어신비스런 대자연과 그와나와를 한결로 싸고잇다 한적구름도업는 하늘에 교교히 빗나는 백은의달빗이 바로그의백합처럼 남신한전체에 쪼이고잇다 달에빗주는 그는 천사처럼 청정하는윈을 어렵유달니 내가슴을때밀엇다 나는어찌할수도업섯다

숨은 허덕여지고 동작은어지러워젓다 모든것이 초조그가운데그와 내모습은방황하얏다 범하늘만이 무거운침묵가운데서 무한한희망을 먹음엇다 얼마가 지난는지 그와나와 얼골을 서로건다보게되엿다 그의두눈에 달빗을반사하는 눈물을 나는 희실히보앗다 나는 그의게 달려들어 그의가느다란목을 휘감고 내히긋 조여맷다 내얼골을다툼 하늘도 별도 달도 산도 들도 은빗호수도 보이지안하엿다 에는 찬이슬이나려안는것을 깨달 내가 나로도라섯때 그는 나의가슴에 엉키인채 새파라케 질렷든 얼골이 장미처럼되여올너 달빛을 가득히실엇다 나에게 네형 어할수업는 진실과 처열을먹음은 우슴을짓고 지금이라도 무슨말을 할듯 할듯하는 표정을보여주엇다

그러타 분명코 저소녀도 나를그대로 보아버린듯하엿는다 생명처인 향우와 소리업는정가 그리고 장엄한천사들 나는 맺고 듯고 보고하엿다 나는 무상의환희의감정이 내심정을 자열시켜 나도몰래 만용스럽게도 그소녀의얼굴을 내손벽으로 호려갈겻다 그는 다시 한번웃드니 나에게 푹하여라도하려는듯이 나의모을 휘여감고 물어버리듯 열중히만지고 그만줄달 롯쳐 다러난다 나는 봅둥처의로 쫏차서니 그집압 꼿바테 여른자 울쏘서서 나를보다 그러드니 홀로 싸웟거리며 빨간백일홍을 (百日紅)을수연시 따서나에게던진다

그이튼날 내 호주머니속에 백일홍이 여전히 노혓다 내가 자동차로 그의집앞을 지날때 그호인의딸은 어제밤뿌렷든 백일홍을바구니에 꿈게담고 서서 고개를숙여고있다 분명이 두어깨가 몹절 치듯이 흐늑이는것을보앗다

라이온치마

라이온치마를쓰시면
瞬息間에
입안을淸潔히하며
蟲齒를豫防합니다。

라이온치마는恒常
優秀한研究部員이嚴密한
研究를거듭함으로品質은
더욱向上하야蟲齒豫防의
效果는確然합니다。

라이온齒磨本舖
株式會社 小林商店

法廷에우는白花 (4 2 卷) 團成社 再生花 (1卷) 豫告 ★운명의 두 女性… 光三 四九二番

桃花劇場 爆破光線 花籠の歌 라ー산의再現 十二月四日부터六日까지 毎日晝夜二回 晝一時 夜七時始映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松竹大船作品 ◇라ー지뽀社作品 次週=大森林 母への抗議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京城堅志洞 平和堂 一劑十円

黑人爆笑隊 戰國一番侍 大森林 ◇와ー너ー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大週=朝鮮名湖山寨王 ギヤング選擧 十二月四日부터六日까지 毎日晝夜二回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特別映畫大公開) 산울림社提供

新富座 (電話本局 六七七番) 乞期待 十二月一日晝間부터四日間特別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毎日興行三回 海底下の科學戰 米國리바블릭映畫社全發聲日本版 共同作品 이류스조세ー호겡 怪奇の殺人 西部劇 全勝 第一劇場 光 一七五五 大週豫告 蒲太つぺ月夜鴉 主演 大河內傳次郎